

GCF 높은 수준과 목표를 가진 사업제안서 필요

2016.5.25, 본 - 녹색기후기금(GCF)이 포스트 파리협정 비전을 제시하며, GCF가 원하는 사업제안서란 높은 목표를 가지면서도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수준 높은 사업에 대한 것으로, 이를 통해 기후행동 규모화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44차 부속기구회의(SBs) 동안 열렸던 브리핑 세션에서 자히르 파키르(Zaheer Fakir) 남아공 출신 GCF 공동의장과 GCF 사무국 대표 참석자들은 최근 상황을 업데이트하면서, 현재 GCF가 재원조성에서 사업수행단계로 이행하며 도전적인 업무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호주 출신 GCF 공동의장 이웬 맥도날드(Ewen McDonald)를 대신하여 참석한 파키르 공동의장은 “[국제사회는] GCF에 믿을 수 없을 만큼이나 야심찬 임무를 부여했다. 혁신적이고 진정으로 변혁적인, 즉 모든 국가와 시민사회,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GCF 이사회와 사무국이 GCF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진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GCF는 2016년 25억 달러의 투자금액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5월 현재 GCF 사업 파이프라인에는 총 24억 달러의 41개 자금지원 사업제안서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안서가 어느 정도까지 개발되어 진행되고 있는지 그 수준은 각기 다르며, 2016년 모든 제안서가 승인될 수 있을 것으로는 내다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파키르 공동의장은 “25억 달러라는 목표에 비추어 얼마만큼을 달성할 수 있는지는 GCF 제안서 승인 역량과 제출된 제안서의 양과 품질에 달렸다. 국가, 인증기구, 국가지정기구(NDA)가 망설이지 말고, 제안서의 숫자나 사업목표에 관계없이 GCF에 제안서를 제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5년 GCF 이사회는 처음으로 8개 사업을 승인하여 총 1억6천8백만 달러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돌아오는 6월, 10월, 12월 GCF 차기 이사회에서 자금지원 결정이 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공유된 GCF 현황:

능력배양 지원: 49개 국가 능력배양 지원 제안서가 승인됨, 활동은 주로 국가지정기구(NDA) 강화, 국가기후전략 및 GCF 목적에 맞는 사업 개발에 집중됨. 능력배양 사업에 1천3백만 달러 이상 할당. 추가로 40개 이상 능력배양 제안서 개발 중

이행기구: GCF와의 협력에 대한 관심이 지대함. 현재까지 33개 이행기구 인증, GCF 이사회 심의를 위해 현재 11개 기구를 추가로 검토 중. 그 외 추가 인증신청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제출 예정.

인증기본협정(AMA): 7개 인증기구가 GCF와 인증기본협정(AMA)을 체결함으로써 자금 이전이 가능해짐

공여협정: 2014년 GCF 초기재원조성을 시작한 이래로 각국 정부가 공약한 자금은 100억 달러 상당. 그 중 99억 달러 상당(96%이상)이 공여협정으로 체결됨.

이번 브리핑 세션에서는 GCF와 연계를 원하는 파트너들에게 일찍부터 또 자주 GCF와 대화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등 연계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도 들 수 있었다.

“각자 나라로 다시 돌아가셔서, GCF와 연계 가능성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NDA에 연락을 취하시고, GCF 사업 제안서를 준비하세요.”라고 파키르 공동의장이 촉구하기도 했다.

차기 GCF 이사회는 오는 6월28일~30일 대한민국 송도에서 열린다.

※원문출처 = <http://www.greenclimate.fund/-/gcf-encourages-more-high-quality-and-ambitious-proposals?inheritRedirect=true&redirect=%2Fhome>